

[사회]

World Cup AGAIN 2002 REDS GO TOGETHER 광주·전남 '12번째 태극전사'



하나는행 등의 후원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독일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게 된 해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해남 공설운동장에서 대표팀의 필승을 기원하고 있다. /해남=최현배기자 choi@

이번엔 '관전'...8년뒤엔 '출전'

6 독일 단체응원 해남 동초등 축구팀

해남동초등학교 축구선수단(감독 박상진) 소속의 '어린 태극전사' 22명은 지난 4월부터 한달이 넘게 독일 월드컵 경기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시골학교고 맨땅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지만, 전세계의 축구선수들이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에 '참전'할 기회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주장 김도연(13·6학년)군 등이 학교 축구선수 22명은 오는 15일 독일로 출국, 19일 대 프랑스전 때 대한민국팀을 응원한다.

해남동초등학교 축구단은 초등학교 축구의 소문난 강자. 지난 1989년 창단한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난해 '쌍팔배 전국우수팀 축구대회'와 '전남도협회장기 쌍팔배 축구대회'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하는 등 크고 작은 대회를 휩쓸어 한국 축구의 '꿈나무 양성소'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독일 원정은 이같은 노력을 눈여겨 본 하나는행과 대한축구협회, '붉은 악마'가 지난 4월 24일 이틀

린들에게 한국-프랑스전 월드컵 경기 입장권과 왕복 경비를 선물한 덕분이다. 하나는행 등이 '오! 필승 코리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8강 진출을 모든 가입 고객에게 추가로 2%의 보너스 크리를 주는 예금' 수익 중 1억1천만원을 해남동초등학교에 전달한 것이다.

"TV에서만 보던 박지성·이영표 형은 물론 지난해던 지단·티에리 앙리 등 프랑스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떨려요.

열심히 응원하고 우리도 다음에 꼭 태극전사가 돼 월드컵에서 뛰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골키퍼를 맡고 있는 주장 김도연군의 각오다. 쌍둥이 형제인 김동국·민국(13·6학년·미드필더와 수비)군도 "98월드컵 당시 네덜란드의 쌍둥이 국가대표선수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4강에 올려놓고 싶다"고 말한다.

박상진 감독은 "어린이들이 월드컵 경기를 직접 보면 축구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이들 중 훗날 우리 축구를 이끌 태극전사가 꼭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광주서 제정 운동 확산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광주 개최를 계기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운동이 광주에서 확산되고 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상임대표장 백낙청)는 12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15일을 국가기념일인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광주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행사위는 광주·전남의 상당수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미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시장과 도지사에게도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백낙청 상임대표장도 축전이 개최되는 14일 광주를 찾아 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남종중(의장 김대형) 학생 100여 명이 광주 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6·15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정 선전전'을 갖고,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알리며 운동 동참 서명을 받았다.

'조국 통일범민족 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의장 홍번)과 'Corea 평화연대'(상임대표 김영남)도 광주시에 곳곳에 '6·15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사위의 오경만 대중사업팀장은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먼저 필요하다"며 "특히 축전이 열리는 광주시민들이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6·15 통일대축전 주요 부대행사

Table with 4 columns: 행사명, 내용, 일시, 장소. Lists various events like '6·15 기획전', '이름다운 우리강산 전시회', '통일 사진전' etc.

6·15 통일대축전 성공 기원 광주 곳곳 부대행사 막을라

오는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대행사가 광주시에 곳곳에서 막을 올린다.

12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삼부동 5·18기념공원에서 지역 인디밴드와 전남대·조선대 그룹사운드 통기타 동아리들이 참가하는 '6·15축전 성공 기원-찾아가는 콘서트'가 열린다.

또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전남대 국제회의동 옹골홀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전망'이란 주제로 '6·15 6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전국의 풍물장터를 소개하는 '8도 풍물장터'행사는 14~16일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5월 정신을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환영단 주먹밥 나누기'행사는 15일 오후 3시 금남로 일대에

서 각각 열린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무진중(15일) ▲나주 금성중(12일) ▲광양중(15일) ▲여수 도원초(15일) 등 4개교에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수업을 실시한다. 그림을 통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도 축전 기간을 전후해 개최된다. 6·15 공동선언의 탄생과 배경, 6년간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여주는 '6·15 기획전'은 17일까지 옛 전남도청 전시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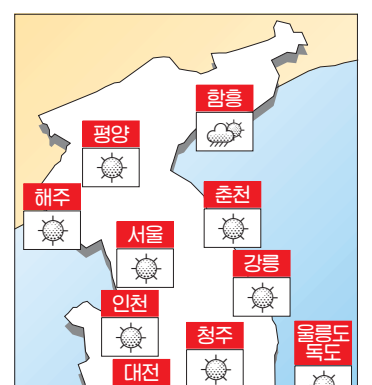
오는 1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전시회'에서는 북한 어린이의 그림 37점과 남한 어린이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은 23점의 포스터 등이 전시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월드컵에...더위에...'쿠박'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6월 12일 (음 5월 17일) <전국날씨>

Table with 2 columns: 지역, 날씨. Lists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like 서울, 부산, 광주, etc.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2:34 썰물 < 07:52 14:22 19:42 여수 밀물 < 09:09 썰물 < 03:22 15:07

▲해돋이 05:17 ▲해질 19:47 ▲달뜨기 20:44 ▲달지기 05:06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7 columns: 날짜, 날씨, 최저/최고. Shows weather forecast for the next 6 days.

광주·전남 강풍·번개 원인과 피해는...

수증기 포함 남서풍에 대기 불안 증폭

우리창 파손·정전·벼락 잇따라

주말과 휴일, 전국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광주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부터 한 시간 동안 28mm의 강한 소나비가 쏟아졌다. 이날 강우량은 34.5mm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았다. 순간적으로 초당 28.8mm의 강한 바람도 불었다. (관련기사 20면)

◇원인은? =광주지방기상청은 "때 이른 더위가 며칠 동안 이어진데다 장마를 앞두고 상승에 있는 찬 공기가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들어 서남해안에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바람이 불어 더욱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대기 불안정 상태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또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 후반까지 돌풍이 불어 치는 폭우가 한두 차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강풍이 불 때는 집안 유리창을 모두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지난 10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D+파트 박모(38)씨가 바람에 깨진 유리창에 다리를 다치는 등 모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유리창 등이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광주 시내 아파트와 상가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서구 금호동 일대와 광산구 월곡동 등 7곳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광산구 우산동 주택가 등 광주·전남 55여 세대가 최고 1시간10분 동안 정전과 큰 불편을 겪었다.

또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민도(40)씨의 벚서 재배사에 벚락이 떨어져 4평 가량이 불에 탔으며, 담양군 고서면 일대 포도밭 비닐 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OZ8942편이 경기도 오산 부근 1만 피트 상공에서 벚락과 우박을 맞아 조종석 유리창이 깨지고 비행기 앞부분 레이돔(radome·항공기 레이더를 보호하는 장비)이 부서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호남예술제 첫 논술 경연

올해 신설된 제51회 호남예술제 논술 부문 경연에 참여한 250여명의 학생들이 10일 광주시 서구 풍양고에서 열린 본선 대회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본선의 논제는 ▲물 아껴쓰기 이유(초등부) ▲출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중등부) ▲정보화 기기 발달에 필요한 미래사회의 가치와 나이갈 방향(고등부) 등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시최고 (Public Notice)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details like address, price, and agent information.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advertisement featuring TV broadcast appearances, exam prepa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Seoul-based institute.